

전남 종합 3위 '굳히기'... 광주 9위 목표 '분투'

제104회 전국체전 대회 6일차

전남, 금 49·은 38·동 68개
근대5종 레슬링 역도 등 '두각'
광주, 금 37·은 30·동 42개
육상 체조 자전거 등서 '선전'

〈17일 오후 8시 현재〉



15년만에 전남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가 5일째를 지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이 종합성적 3위를 향해 내달리고 있다. 개최지인

전남도는 체전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대회 성적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체전이 지역의 역량을 발휘하는 장이 되고 있다. 〈관련기사 2·3·4·5·18면〉

이번 전국체전을 계기로 '글로벌 관광·체육·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겠다는 전남도는 치밀하고 섬세한 대회 운영으로 선수단은 물론 해외 동포,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전남의 맛과 멋이 담긴 다양한 문화행사로 전남의 매력을 국내외 곳곳에 알렸고,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질서의식도 합격점을 받고 있다.

전남선수단은 근대5종·레슬링·역도·육상·태권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종합 3위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17일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49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68개로 경기와 경남에 이어 종합성적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선수단은 이날 사격 여일반 전남선발(김보미 외 3명)이 공기권총 단체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으며, 육상 여고부 4x100mR에서 전남체고(이은빈 외 3명)가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또 레슬링에서 여일반 F50kg급 김여진(전남체육회)과 F53kg급 천미란(삼성생명)이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7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 고등부 400m 릴레이 결승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결승선으로 달려나가고 있다. 전남 대표가 46초 89로 우승을 차지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어 테니스 남일반 김근준(국군체육부대)이 개인단식에서, 태권도 남일반 -58kg급 이동욱(국군체육부대)이 은메달 1개씩을 보냈다.

기대했던 축구 남일반 목포FC와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럭비 한국전력은 동메달에 그쳤다. 여일반 펜싱 전남도청은 사브르 단체 4강전에서 고배를 마시며 역시 동메달에 머물렀다.

광주선수단은 한자리수 동위 목표 달성을 위해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이날 광주는 육상 정혜미(광주시청)이 여일반 100mH에서 1위로 골인 6연패를, 팀 동료들인 김

국영·김태호·강의빈·모일환이 이어 달린 남일반 4x100mR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문건영(광주체고)은 남고부 체조 개인종합에서 작년 이어 이번에도 금메달을 차지해 전국체전 2연패를 기록했다. 이어 자전거(도로개인독주25km 이주미)·스쿼시(동일미래과학고)·사격(스탠다드권총 장대규)에서 각각 은메달을 보냈다.

기대를 모은 광주서구청 펜싱은 여일반 에베 단체전에서 아쉽게 동메달에 머물렀다.

광주선수단은 이날 오후 8시 현재 중간집계 결과 금 37·은 30·동 42개로 종합순위 10위를 기록하며 분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민의 이해와 협조로 5일째가 지난 현시점에 대회가 차질없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수단 역시 투혼을 발휘한 멋진 경기로 전남 체육인의 굳센 기상을 보여주고 있어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쌀쌀한 날씨 ... "출근 때 외투 입으세요"

광주·전남 아침최저 10~16도
19~20일에는 일부 지역에 비

광주·전남은 24월기 중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霜降·24일)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등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 18일은 구름이 많이 끼어 흐린 날을 보이겠지만, 19~20일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17일 예보했다.

광주·전남지역 18일 낮최고기온은 22~24도를 보이겠지만, 광주·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러 19일 아침최저기온은 10~16도, 낮최고기온은 22~24도에 분포하겠다.

이들 동안은 낮최고기온이 평년(낮최고기온 21~23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 15도 내외의 큰 일교차가 발생해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광주·전남지역은 19일 서해상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오는 주말과 휴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크게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19일 밤부터 다시 찬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기온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 지자체 약취외의 전정 중	▶7면
제8회 동주문학상에 이은 시인	▶17면
KIA 타이거즈 남은 과제는 '부상 관리'	▶19면

전남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들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

사업내용

• 온라인실태조사

조사대상 해당 분기의 중소기업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 밀집지역: 신안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특정지구, 신기술중심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조사방법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한 분기별 설문조사 시행

• 현장심층조사

조사대상 해당 분기에 '주인' 단계로 분류된 중소기업 밀집지역 및 해당 밀집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사방법 위기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심층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산학연 전문가, 기본·중간공과 협업하여 기업 방문조사 실시

• Stand-up 맞춤형 지원

지원대상 | 해당 분기에 '주인' 단계로 분류된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심층현장조사(위기진단)에 참여한 기업

지원내용 | 컨설팅·기술·사업화 분야 중 기업이 희망하는 분야 1개를 선택하여 맞춤 지원(지원분야 중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 맞춤형 지원분야에 따라 최소 80만원 ~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지원기간 | 최대 2개월

구분	지원분야	지원항목	세부 지원내용	지원주체	지원금액
맞춤 지원 (예)	컨설팅 지원	컨설팅	기업 애로사항 진단 기반 전략로드맵 수립 등 기업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 (현장에 방문하여 최소 2회 ~ 최대 5회까지 지원)	전문가	최소 80만원~ 최대 200만원
	기술 지원	시험 및 성능분석, 특허출원 인종획득, 기술정보 분석	시험평가 및 분석 장비를 활용한 제품의 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개발 기술의 상용화, 디자인인증, 국내외 특허출원 지원 등 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제품인증 지원, 기술동향 및 산업시장 환경 분석, 관련 인증 및 지식재산권 분석 등 지원	공급 기관 (업)	최대 800만원 (부가세 제외)
사업화 지원	디자인 개발	마케팅 전략 수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시장현황 및 트렌드 분석, 집적고려 도출 등 마케팅 전략 수립	공급 기관 (업)	최대 800만원 (부가세 제외)
	마케팅 지원	제품 홍보물(제품 브로슈어, 제품 홍보 동영상, 제품 소개자료 등) 제작 지원			

지원절차



문의처

[재]전남테크노파크 위기지원센터 TEL. 061-729-2543, 2545